

20
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결과자료집



안 산 문 화 재 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20
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결과자료집

同苦同樂

동고동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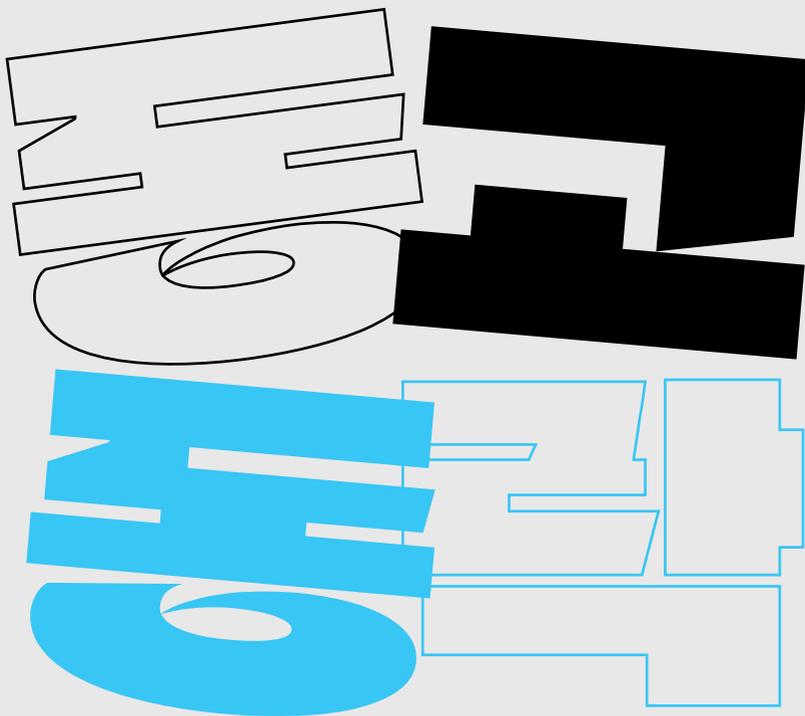
안산문화재단

20 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결과자료집

同苦同樂

연세문화재단



CONTENTS

동고동락 소개	004
청년기획단 소개	008
선정 청년예술인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014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016
청년 작가 전시회 청(講)신호 : 고요한 파동, 12개의 울림	018
경기아트소사이어티	020
김채성	022
노찬빈	024
박단비x한빈	026
양예은	028
요즘 커뮤니케이션	030
이다희	032
이마골로기	034
정효정	036
투은(Two Eun)	038
필라멘트	040
황상운	042

청년 예술 콘서트 청(聽)신호 : 파동이 우리를 주파할 때	044
as(애즈)	046
LOOP	048
박창훈 탭댄스 컴퍼니	050
보트피플	052
오드아이	054
악당후	056
오티비OTB	058
울담	060
이재영	062
이젠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064
집단	066
과르뎃 앤	068
킬라톤	070
투플	072
힐소폰즈	074
결과공유회	076
온라인 설문조사	078
홍보실적	084

동고동락 소개

20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푸름 가득한 청년들의 '청(靑)신호'를 담은 올해의 이야기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은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획하며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다양한 분야의 신진 청년예술인 발굴 및 창작작품 발표 기회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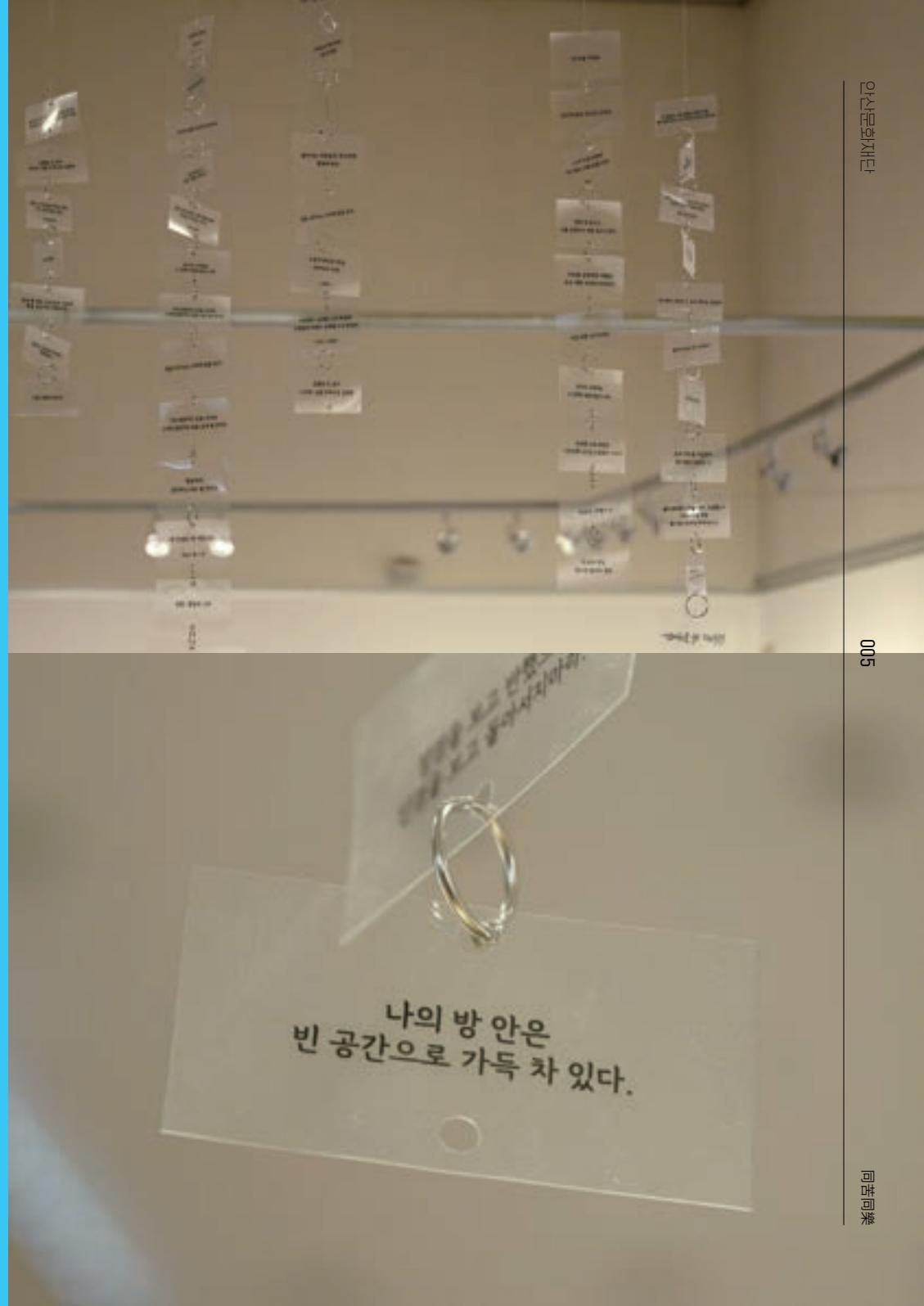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동고동락은 새로움을 한껏 담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처음 기획하며 오로지 청년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특강 및 자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탄탄히 쌓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교류함으로써 지역 청년문화 확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9월 '청년의 날' 주간에 맞춰 청년 예술 콘서트와 청년 작가 전시회를 개최하며 댄스, 음악, 회화, 미디어아트 등 청년예술인들만의 색깔이 가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각자의 개성을 담아 내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든든한 청년기획단과 열정 가득한 청년예술인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애써주신 부서원들이 있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이 자료집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동고동락의 부제 '청(靑)신호'는 청년들의 파란 청춘을 선명하게 그려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춘이라 꿈꿀 수 있는 작품 세계를 공연과 전시 형태로 그려냄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걱정과 불안 가진 청년 세대를 위로하고, 각자의 길 앞에 언제나 청(靑)신호가 켜지길 응원해본다.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문화지원사업을 담당하며 뜻깊고 보람찬 기억을 남길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위해 폭넓은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동고동락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업담당자 오혜미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 **사업기간** : 2023. 2. ~ 10.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만 19~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과 지역예술인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작품 발표 기회 제공

추진목적

- 청년기획단과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자발적인 청년 프로젝트 진행
- 공연·시각예술 분야의 지역 청년예술인 발굴 및 창작 작품 발표 기회 마련
- 청년의 날 주간을 중심으로 '청년예술제'를 진행하여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집중 조명

추진과정

1 청년기획단 공모 및 선정

공모기간 : 1. 30.(월) - 2. 24.(금)
접수기간 : 2. 20.(월) - 2. 24.(금)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 안산시 소재 우대
심의기간 : 2. 27.(월) - 3. 10.(금)
선정발표 : 3. 13.(월)
접수결과 : 16건
선정결과 : 5건

2 청년예술인 공모 및 선정

공모기간 : 1. 30.(월) - 3. 20.(월)
접수기간 : 3. 7.(화) - 3. 20.(월)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단체 누구나
 * 안산시 소재 우대
심의기간 : 3. 21.(화) - 3. 28.(화)
선정발표 : 3. 31.(금)
접수결과 : 55건
선정결과 : 27건

3 청년기획단 O.T

일자 : 3. 24.(금)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북카페
내용 : 동고동락 프로젝트 소개 및 청년기획단 활동 안내

4 선정 청년예술인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일자 : 5. 17.(수), 5. 19.(금)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영상강의실
내용 : 동고동락 프로젝트 소개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5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일자 : 6. 29.(목)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내용 :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년예술인 맞춤형 특강 진행 및 자유 네트워킹

6 청년 작가 전시회 <청(請)신호: 고요한 파동, 12개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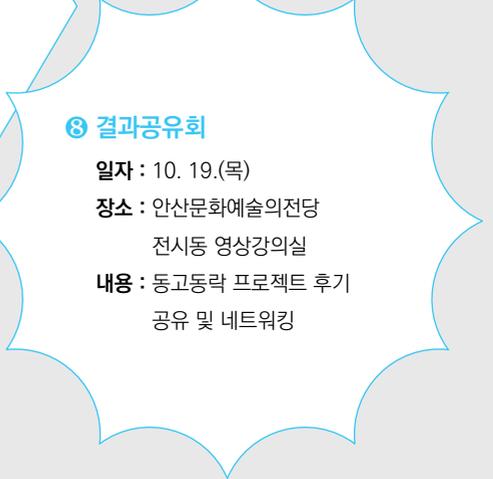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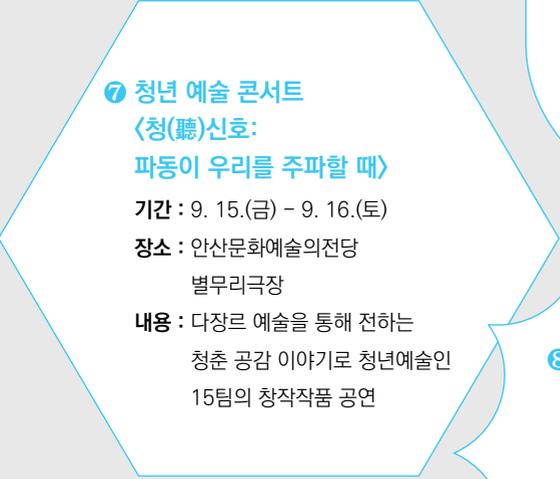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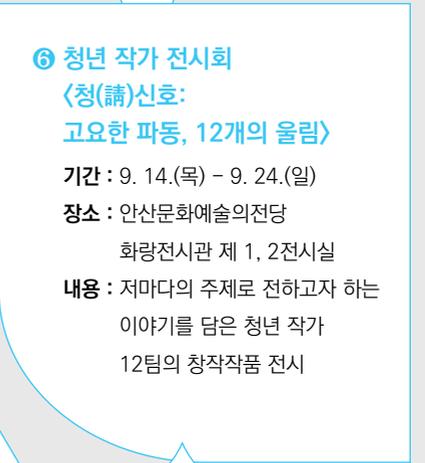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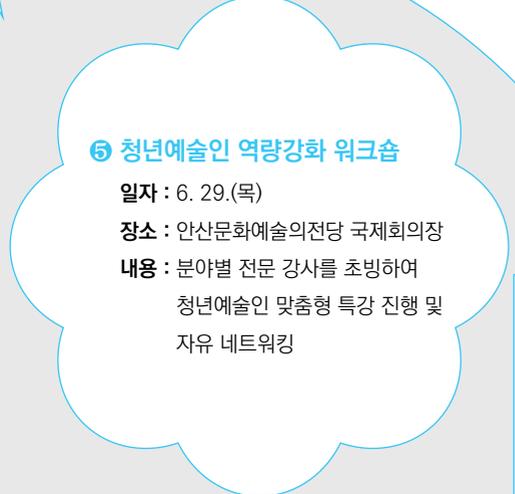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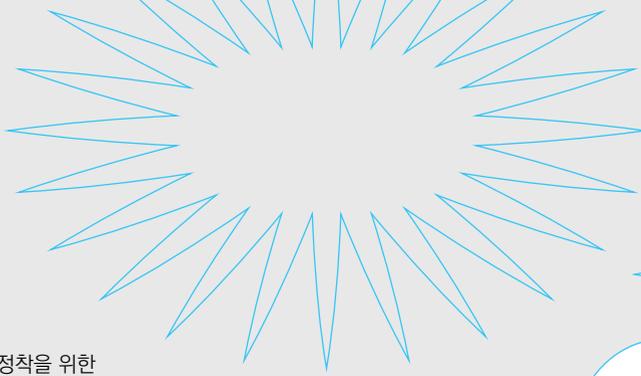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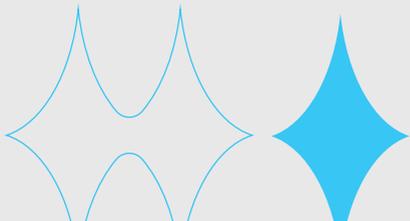
기간 : 9. 14.(목) - 9. 24.(일)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 1, 2전시실
내용 : 저마다의 주제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청년 작가 12팀의 창작작품 전시

7 청년 예술 콘서트 <청(聽)신호: 파동이 우리를 주파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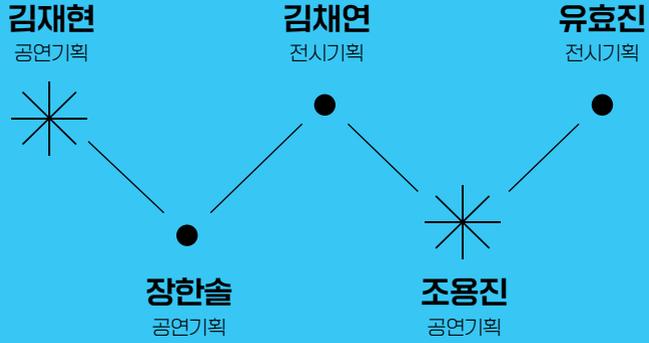
기간 : 9. 15.(금) - 9. 16.(토)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내용 : 다장르 예술을 통해 전하는 청춘 공감 이야기로 청년예술인 15팀의 창작작품 공연

8 결과공유회

일자 : 10. 19.(목)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영상강의실
내용 : 동고동락 프로젝트 후기 공유 및 네트워킹



청년기획단 소개



활동내용

- 3월** OT 및 1차 회의 | 프로젝트 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2차 회의 | 청년예술인 심의

- 4월** 3차 회의 | 동고동락 프로젝트 추진 계획
4차 회의 | 동고동락 전시 및 공연 구성안 공유
5차 회의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기획 및 준비

- 5월** 6차 회의 | 청년예술인 간담회 및 네트워킹 준비
7차 회의 | 청년예술제 공연 및 전시 기획

- 6월** 8차 회의 | 공연 및 전시 작품 리스트업, 일정 정리
9차 회의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준비

- 7월** 10차 회의 | 청년예술제 역할 분담 및 준비
11차 회의 | 전시장 실측 및 작품 디피 계획
12차 회의 | 공연 셋리스트 확정 및 전시 일정 공유

- 8월** 13차 회의 | 공연 사회자 대본 점검 및 무대 구성 공유
14차 회의 | 전시 작품 디피 및 운영 점검

- 9월** 청년예술제 운영





김재현

_ 공연기획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추억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극단 고등어를 시작으로 많은 공연과 전시, 행사들을 경험했고, 관람했고, 즐겼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팬데믹을 겪으며 청년의 이름을 달고 공연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당히 청년을 가슴에 달고 공연을, 전시를 기획하며 참 많이 들떴고 즐거웠습니다. 안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자원자들을 만났고 함께한 예술인들을 보며 끊임 줄만 알았던 예술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끊겼던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었나, 내가 팬데믹에 사회와 함께 가라앉아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더 와닿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청신호>가 즐겁게 남아있길 바랍니다.



이번 청년기획단 활동은 제게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의 예술계 진입을 돕는 동고동락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된 청년예술인들은 각각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해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법, SNS 마케팅 및 포트폴리오 활용법 등의 특강을 진행하고,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멋진 여정을 함께한 기획단분들과 누구보다도 고생해주신 담당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발판을 통해 멋진 여정을 향해 달려나갈 청년예술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김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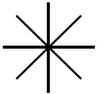
_ 전시기획



유효진

_ 전시기획

안녕하세요. 동고동락 청년기획단 유효진입니다.
이번 '2023 동고동락 : 청신호'에서는 전시와 공연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로 관람객을 이끌고, 청년과 함께 소통하며 에너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디자이너로서,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 참관객뿐만 아니라 예술인 입장에서든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 파트 위주로 기획에 참여했는데요. 예술인 한분 한분 소통하며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관객분들께서 웃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다 보니 업무가 많고 정신없을 때도 있었지만, 기획단분들과 오해미 담당자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남겨주신 예술인분들, 기획단분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함께한 예술인들을 보며
끊임 줄만 알았던 예술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 김재현 -

”

“

올해 사업은 작년의 답습이 아닌
2023년 속 저와 청년예술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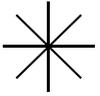
- 장한솔 -

”

**장한솔**

_ 공연기획

작년에 이어 동고동락 청년기획단을 연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청년 예술가들까지.
동고동락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움이 더해져
청년이라는 푸르름을 더 밝게 빛내는 사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의 답습이 아닌 2023년 속 저와
청년예술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공연과 전시에 참여해주신 청년예술가분들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용진, 재현, 효진, 채연 기획단분들 그리고
사업 담당자 헤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많은 것을
얻었던 동고동락이었습니다.
내년 2024 동고동락에도 또 다른 청년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고동락 기획단으로 참여한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동고동락 기획단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려웠는데 함께 잘 이끌어준 담당자님과 동료들이
있어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공연과 전시를 잘 끝내서 기쁘고,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용진**

_ 공연기획

선정 청년예술인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동고동락 공모에서 선정된 시각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 자리 마련

5. 17.(수), 5. 19.(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영상강의실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년예술인 맞춤형 특강 및 자유 네트워킹 진행

6. 29.(목) 10:30-18: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시간	내용	강사
10:30-12:00	안산지역 리서치 기반 예술작품 제작 사례	이양구 극작가/연극 연출가
12:00-13:20	점심 및 휴식	
13:20-15:00	SNS 마케팅 및 포트폴리오 활용법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
15:00-17:00	예술인들이 수월하게 작성하는 지원사업 제안서의 비밀	김도연 인사이드99 대표
17:00-18:00	자유 네트워킹	



청년 작가 전시회

청(請)신호: 고요한 파동, 12개의 울림

9. 14. (목) - 9. 24. (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 1, 2전시실

참여작가

동고동락 공모 선정 청년 작가 12팀

전시내용

저마다의 주제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청년 작가 12팀의 창작작품 전시

전시구성





경기아트소사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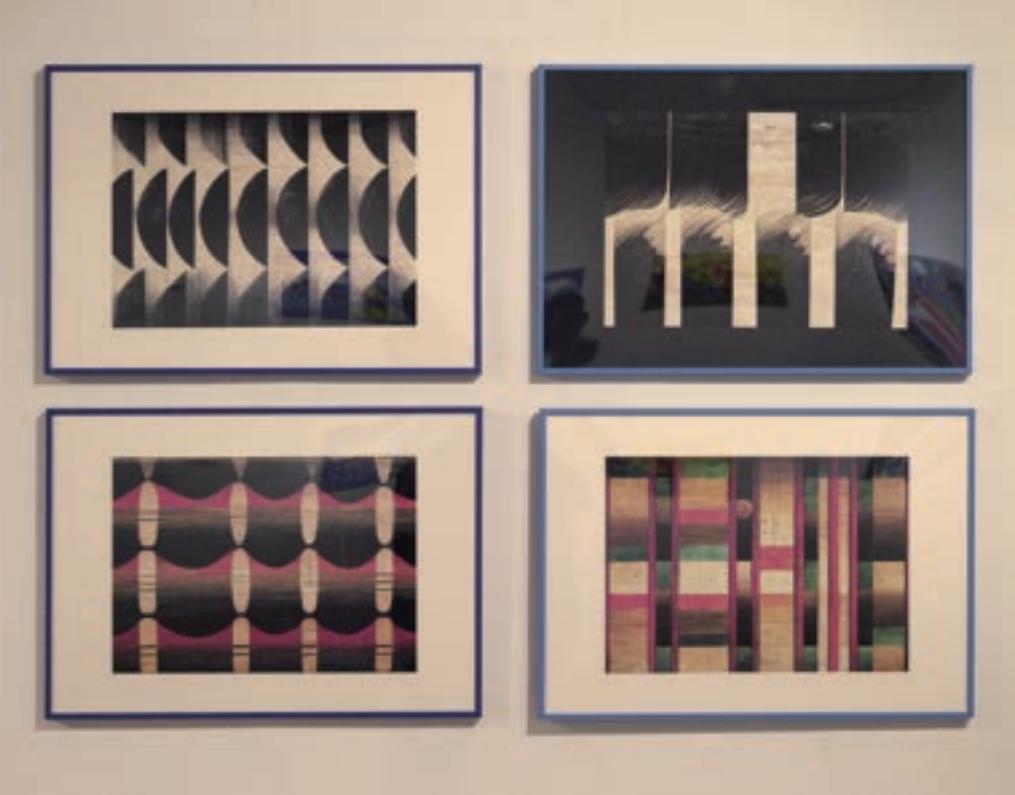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창작/전시활동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경기지역의 문화재, 고가옥 혹은 한국 전통 국악기, 국악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독야청청>

동고동락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시리즈를 전시했다.

첫째로 한국 전통 건축물의 이미지를 극도로 평면화, 추상화한 '설계도(Product drawing)' 시리즈를 전시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설계도를 표현했다.

둘째로 소나무를 주제로 한 '솔' 시리즈를 전시했다. 소나무의 차갑고 청결한 이미지, 소나무가 땅 위에 쓸쓸하게 박혀있는 느낌을 표현했다.





김채성

디스에이블드, 아트림 소속작가

2022. 12. 청년뉴웨이브전 / 배곧아트큐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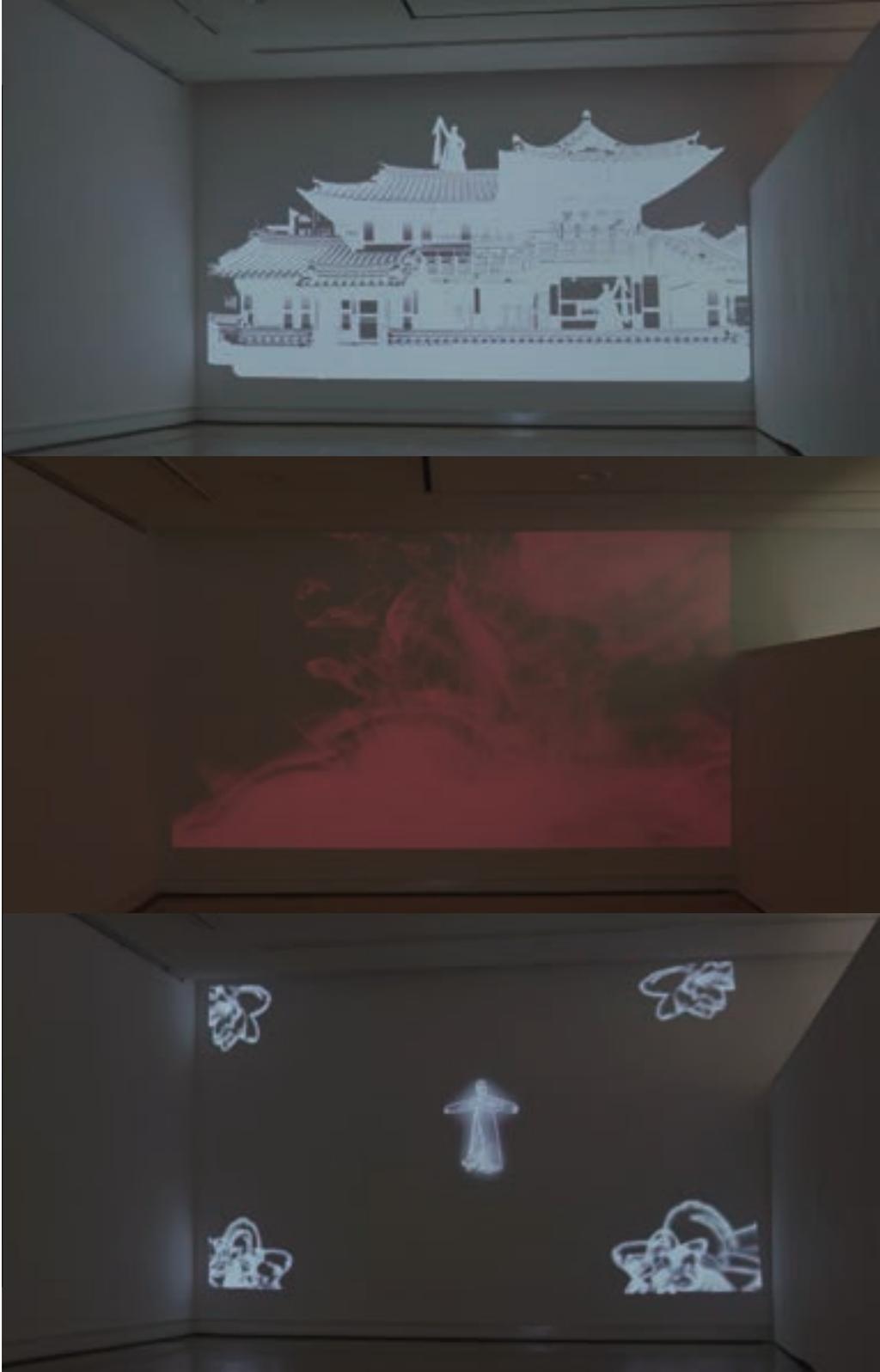
2022. 11. 드림어빌리티전/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1, 2관

작가의 순수한 마음은 자연 속의 모든 생명들에게 색으로 생명을 불러 모으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유로운 상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기분 좋아지는 색감을 더해 완성한다. 작품을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 상상의 나라를 맘껏 펼치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번 전시는 '나의 모든 것'이다.

원가를 정해 놓지 않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다 모아놨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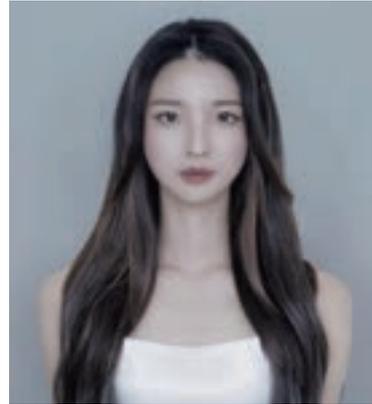
노찬빈

<사머니즘>

미디어파사드를 위주로 같은 현실적인 공간에 있되 판타지적인 공간에 있는 듯한 공간감의 변화를 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 양자역학과 불교 철학에서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교 철학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모든 것은 태어나고 늙어간다. 병들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철학적인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어 현대적인 프로젝션 맵핑으로 구현하고 싶다. 무용수와 콜라보로 무대 위에서 시각적 효과를 매우 퀄리티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수많은 프로젝션 맵핑 레퍼런스를 통해 공부하고, 철학적 주제에서 영감받아 주제를 정하고 싶다. 관념적인 주제를 시각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퀄리티 있는 공연 및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도 미래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싶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며 어디로 갈 것인가? 양자역학과 불교철학을 묶어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박단비x한빈

서울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졸업예정

자극적인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팝콘브레인' 현상에 대하여 다뤘. 현재의 인류는 디지털 매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점차 디지털 매체에 중독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렇기에 작품을 관람하며 스파크처럼 튀어 오르는 자극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총 세 가지의 작품(텍스트, 영상, 이미지)을 관람하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강한 자극의 지점을 떠올려볼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들에게 익숙해져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작업이다.

<팝콘은 섭씨 200도가 넘어야 터지기 시작한다>

일상에서의 가장 현대적인 순간들을 가장 아날로그한 매체들로 표현함으로써 모순과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한다. 라이트박스 위에는 평화로운 순간들 그리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필름 조각들이 놓여 있다. 그 옆에 놓인 루베를 통하여 관람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더욱더 강렬하게 자극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 아이폰으로 재생되는 영상은 자신도 모르게 실 새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새로운 자극을 찾아내는 현대 인류의 모습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일기와 벽에 붙은 문장들에서는 다른 매체들보다 짧게 머무르는 현상을 자연스레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용했다. 우리의 전시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양예은

2023 하울: 해방 <形形色色> 전시

2022 경기문화재단 <Between Futures> 전시 쇼케이스

2021 CICA Museum <Circle 2021> 전시

얇은 겹겹질을 타고난 채 끈근히 자신의 내부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온실을 의인화한 작가는,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출몰되어 외부환경을 견뎌내는 그 운명에 자신을 온전히 투영시킨다. 작가가 어릴 적 경험했던 온실의 기억은 허허벌판 한구석에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온화하며 한겨울에도 생명력이 뛰노는 곳이었다. 그러나 생기를 때어와야만 작동이 가능한 곳이기때, 그 약간의 침투를 허용하기 위해 허술한 외벽을 가지게 된다. 뛰노는 생명력만큼 조금이라도 보수를 소홀히 하면 무너지고 마는 나약한 공간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실내가 작가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GreenHouse_Inside>에서는 온실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 내부의 이야기를 게임매체를 사용하여 전달한다. 플레이어는 게임 진행 중 시각적인 외부의 변화에 대미지를 입지만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내부에 숨긴 자양물(양식)들을 먹으며 생명력을 키운다. 그 생명력으로 자신만의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또한 <effusion>에서는 온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그 온실에서 나오고자 하는 인간을 번데기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낸다. 작품의 과정에서 온실 내부의 삶을 그리며 그러한 환경에 마주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면으로서 수용한다. 작가는 이처럼 일상의 경험에서 수집한 객체를 자신에 빚대어 구체적인 요소들을 배치시켜 세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온실을 인간에 비유하며 분석하는 작가의 시선은 주제적 측면에서 멈추지 않고 외부 세계에서 떨어져 숨고 싶은 한 타인의 내면과 외부에 대하는 태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요즘커뮤니케이션

2023 단편영화 <당신의 동산>, <이상한 사람>, <오프 온>, <한걸음> 등 작/연출

2022 제주 호은문화재단 <You can change it!> 대본 집필

2021 경기문화재단 아트체인지업 선정작 <평범해서 특별한 Someday> 웹드라마 작/연출

세상에 필요하다고 믿는 다정과 사랑에 대한 여러 모습과 글,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10년간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음악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디서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영상의 매력에 빠져 단편영화와 웹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위료가 필요한 순간이 존재하고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작은 이야기와 멜로디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에 임하고 있다.

<와리와 개구리>

이번 작품은 '핸드팬'이라는 악기의 연주가 주가 되는 단편영화다. 핸드팬 음악 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소리라고 느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던 중 '와리와 개구리', '화수분 바가지'라는 안산의 설화를 듣게 되었다.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고 풀어준 후 은혜를 받았다는 동물보은담인데, 본 작품에서는 이 설화들을 모티브로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어주는 진짜 어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사보다는 음악을 통해 소통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띄고 있다.





이다희

2023 2인전_문화복합공간 Urban Community 안산

2022 어디있게_갤러리카페 Eastern moon 안산

작가의 작업 목표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불안함, 낙약함과 의심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마주하고 맞닥뜨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넘어 진정한 나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더 큰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다양성과 낙약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해 본다.

<아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힘의 역학,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치심, 의심, 분노, 자기혐오 등 우리를 압도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했다. 하지만 단순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나아가 워트나 자조 섞인 제목을 통해 좀 더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느낌을 녹여내고자 했다. 특히 타이틀 <아니>라는 일견 간단한 문구는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종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마골로기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영위하는 단체이다. 한국의 영화 감독, 디자이너, 미술작가, 소설가를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 한다.

<리터레시 안산>

도시를 주제로 한 사진, 회화 작품들을 전시했다. 회화 작품에선 도시가 지닌 욕망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화장품 매장이 가득한 백화점 1층의 모습을 추상 및 상징화하여 작품에 담았다.

사진 작품에는 도시 속 흔하지만 인상적인 풍경을 담았다. 사진들은 모두 경기도의 밤을 촬영했다.



정효정

2022. 8. 오디오 드라마 <그날을 기다리며>

<누이블랑쉬: 12인의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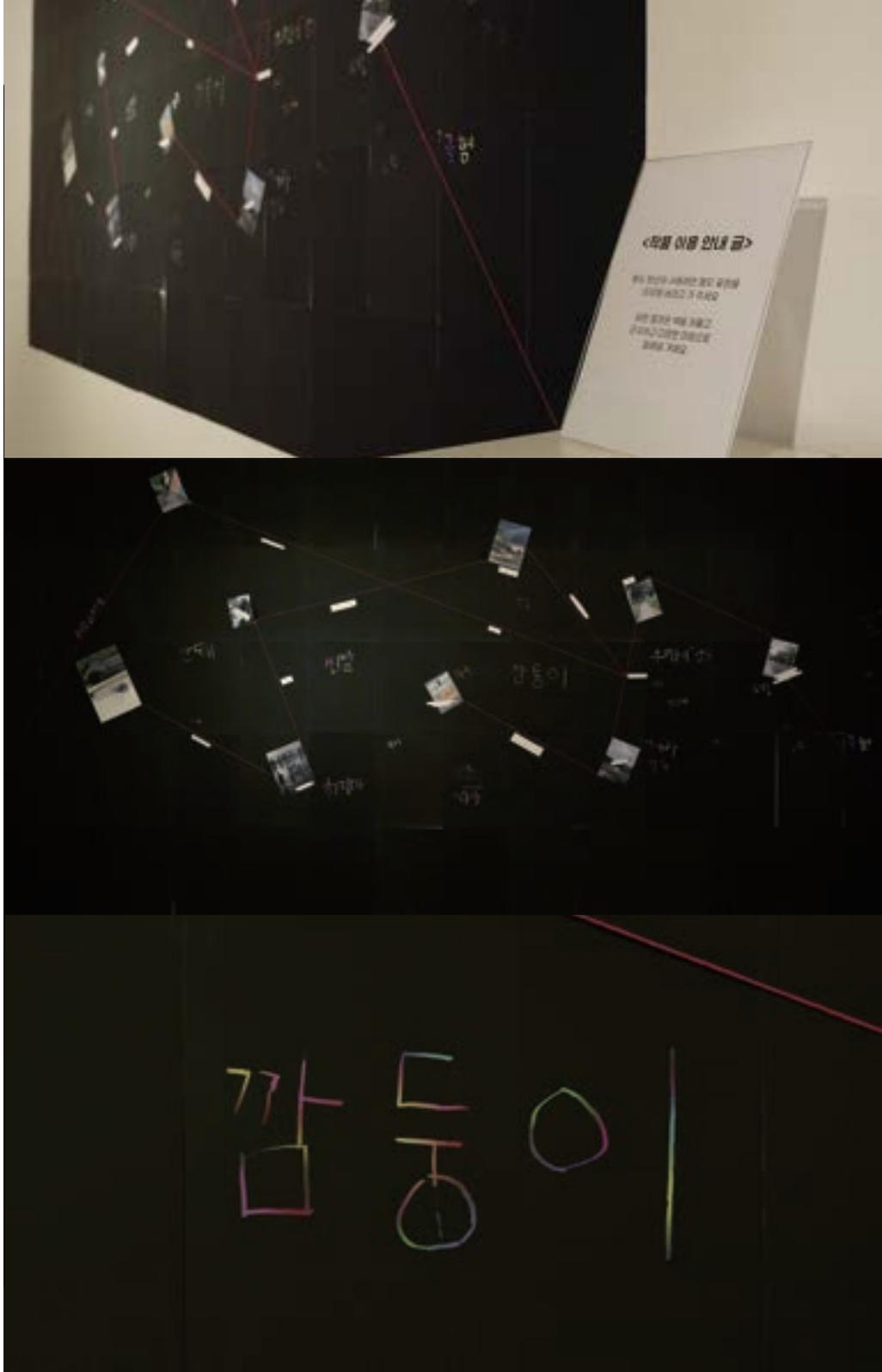
오디오 드라마,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장르. 오디오 드라마는 어느새 마니아층을 위한 문화가 되어 버렸고, 그에 따라 입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직 오디오 드라마의 매력을 모르는 그들에게엔 오디오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를 즐겨 듣는 이들에게엔 함께 즐기자고 말하고 싶다.

오디오 드라마를 창작하게 된 지는 고작 2년이 안 되었다. 각색을 하기보단 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작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제일 쉬운 선택은 창작이었다.

어떤 작품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창작 오디오 드라마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엔 작품의 기획부터 포스터 제작, 극본 작성, 연출, 캐스팅, 녹음, 본편 제작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다. 길고 험난한 모험길(?)을 떠나야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목소리를 만나는 것과 그들과의 합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청자들도 이들의 호흡을 느끼며 생생한 현장감의 순간에 함께 하길 바란다.
더 많은 이들이 오디오 드라마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투은(Two Eun)

우리 사회에 혐오는 어디까지 스며들었을까. 우리는 이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

혼자 답을 찾아내기보단 글과 사진 두 전공을 융합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배경을 사진 찍은 후 우리만의 질문을 던져가며 말이다. 함께 작업하며 우리의 의도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보여주며 유의미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TO.>

누구에게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특정한 곳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즉 어디서든 혐오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는 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극히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내포된 메시지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퍼져나가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하나의 단어에 갇힐 수 없는 _에게 혐오가 없는 낭만을 건네본다.





필라멘트

2023 빈칸 을지로 '아름다운 지옥' 3D 모델링 전시

필라멘트는 전구의 부품이자 3D 프린터 제작 시 재료가 되는 원료 이름이며 가느다란 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우리 듀오는 가느다란 두 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오세은은 서울예술대학 극작을 전공하며 관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중점으로 창작하며 현시대에 필요한 작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오태경은 서울예술대학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형태와 질감이 사람들의 행동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반응을 알게 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낀다.

<Catus, Us>

선인장은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인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로 눈들은 가시로 진화하였으며 양분이 없어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대사회로 소환된 이 다육식물을 작가는 상상력을 통해 실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선인장의 형식만을 모방해 구현하였다. 인형같이, 생물 고유의 동적인 느낌은 삭제되고 부드러운 표면이 만들어내는 무해한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황상운

2022 세라믹 브랜드 무오라 대표
2021 버김제 3인전
2021 개인전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Line)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에 접목하면서 손잡이, 모서리 등 핸드메이드의 특유한 분위기를 담아내고 자연스러움에 디테일이 더해진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나비문양도자함>

이번 전시에 발표한 작품은 전통적인 평탈기법을 현대의 기술과 결합한 작품이다. 평탈기법과 도자기 상감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장식으로, 도자기와 목재 그리고 옷이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재료들이 결합되어 이로 인해 생기는 감각적인 대비와 형태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제작했다. 레이저 커팅 기술을 이용하여 목재를 나비 모양으로 자르고 이를 옷칠로 고정함으로써 나타난 전통적인 장식기법에 대해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청(聽) 신호: 파동이 우리를 주파할 때

9. 15.(금) - 9. 16.(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공연단체

동고동락 공모 선정 청년예술인 15팀

공연내용

다장르 예술을 통해 전하는
청춘 공감 이야기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작품 공연

공연구성

음악 6 건	무용 1 건	댄스 3 건
	연극 2 건	전통예술 3 건



as(애즈)

2023 안산거리극축제 <시민의 서사> - New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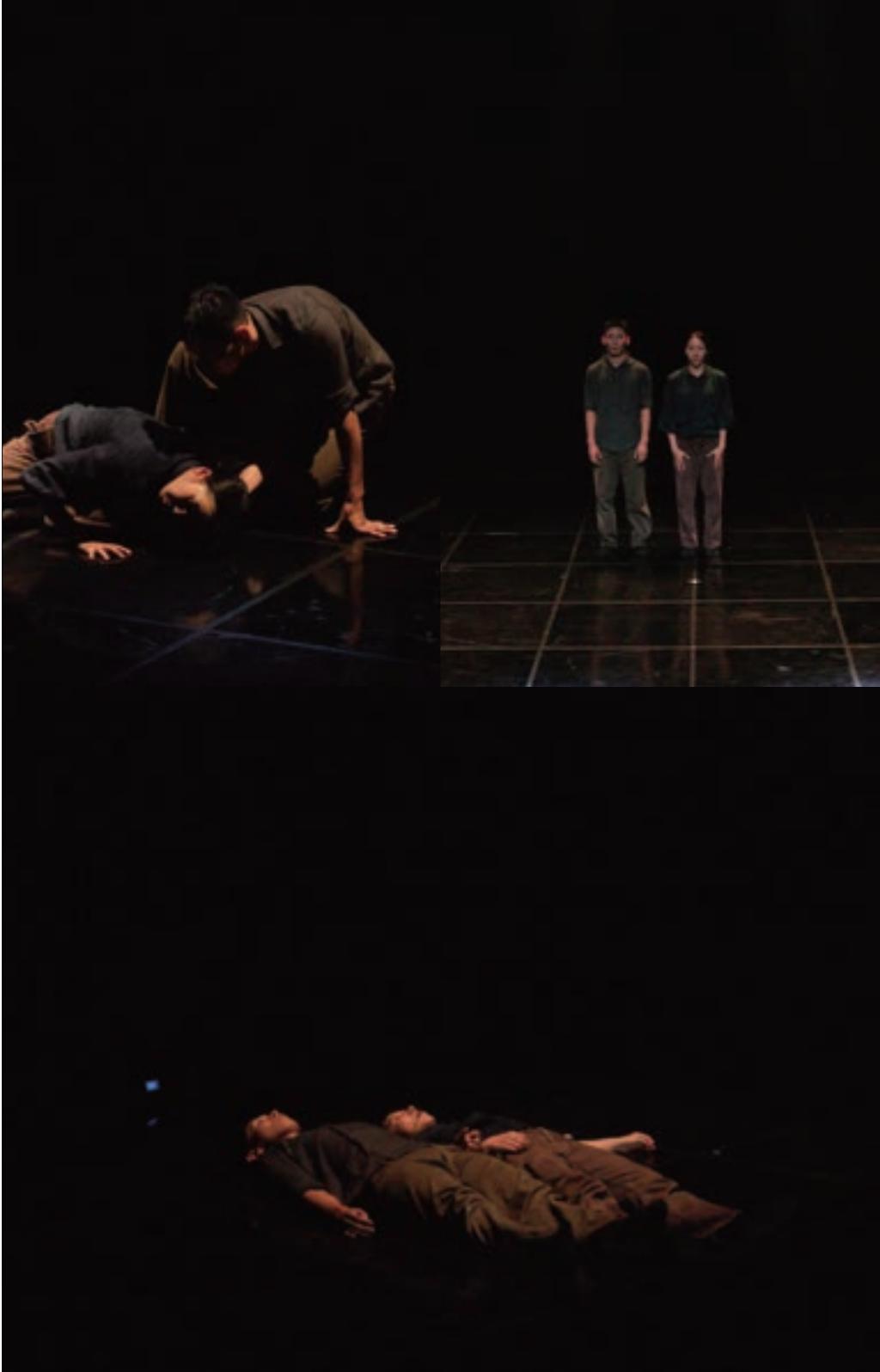
2022 안산문화재단 상록수역 만남의 광장 - as performance

as(애즈)는 안산에 거주하며 춤을 통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다. 팀원 모두 백제예술대학교 실용댄스과를 졸업한 후 스트릿 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스튜디오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며 나아가 안산에서의 댄스 행사 및 공연 기획까지 계획 중이다. 팀이 결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8년 동안 함께 예술 활동을 이어와 그 어떤 팀보다 단단한 팀워크가 돋보인다. 안산시의 스트릿댄스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안산 시민들 역시 더 친근하게 스트릿 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Newtro(뉴트로)>

이 작품은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음악들을 활용한 힙합, 왁킹, 락킹 등 다양한 스트릿 댄스 장르 기반의 움직임으로 청년들의 공감을 일으키고자 레트로와 트렌디함을 병합한 '뉴트로' 스타일의 퍼포먼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SNS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고, 지난 세대에 대한 그리움으로 옛것을 찾게 되면서 현대에 새롭게 탄생한 것이 '뉴트로'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젊은 세대가 가진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러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을 추구하며 세련되고 정제된 것들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임에도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고 한다. 이는 예술 문화의 접근성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어 주고,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예술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과 함께 하나의 일탈이 되어줄 것이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이 추억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영감을 받아 다시 현실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LOOP

2023 인천광역시 더원아트코리아 '찾아가는 문화공연'
 2023 경기아트센터 거리로나온예술
 2023 광명문화재단 '침바지-창작준비지원사업'

LOOP는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고리'처럼 움직임으로 이어내자고 결성된 현대무용 단체로, 표현방식인 매개체의 특징과 움직임을 결합하고 리서치하여 안무로 구성하는 방식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Please mind the gap>

제목의 의미는 지하철 차량 틈을 조심하라는 의미의 안내 방송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이의 틈을 조심해서 탑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작은 틈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안내 방송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틈을 유지한 채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느끼며, 이러한 인간관계 사이의 틈을 무대 공간을 이용하여 또 움직임의 질감 및 무용수들의 표현력 특성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설정한 현대무용 작품이다.





박창훈 탭댄스 컴퍼니

2022 대전 커먼즈필드 개관식 오프닝 출연

2021 제2회 안양청년축제 온라인 공연

2020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협연

안양을 기반으로 탭댄스 공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팀으로 뉴욕 Broadway dancercenter, Steps on broadway에서 연수를 받고 2018년 세계 댄스 올림픽이라 불리는 IDO WORLD TAPDANCE CUP 남자 싱글 부문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후 제자와 함께 여러 공연을 다니며 재즈, 클래식, 팝 등 다양한 레퍼토리에 맞춘 작품을 구성해 신선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탭댄스로 만나는 음악 이야기>

재즈, 팝, 영화음악,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 음악에 맞춰 다이내믹함과 잔잔한 감성 있는 무드, 칼 군무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탭댄스를 선보인다.





보트피플

2023 제10회 15분 연극제 <작가를 팝니다> 참여
 2022 <HELP YOURSELF> 공연
 2022 <이주하는 몸> 공연

보트피플은 기존의 문법에 부리를 두지 않고, 지금-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 향주한다. 동시대의 서사를 고찰하며 일상의 기호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착 문화와 미디어 결합에 관심 두고 있다.

<작가를 팝니다>

8년 차 극작가 박 씨는 대본을 파는 데 인생을 걸었다. 그는 관객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대본을 쓰면 쓸수록 관객의 냉혹한 피드백만 돌아올 뿐이다. 극작가는 작품에 대한 냉혹한 피드백에 감히버린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던 끝에 극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판매하기로 한다.





스트링팝뮤직-오드아이

남원 춘향제, 흥부제, 아시아게이트볼 축제, 오투기 문화축제 출연
 피아니스트 이진욱 콘서트 게스트, 가수 백아연과 클래식 버전 콜라보 등
 2013 오드아이 창단

전자현악팀 '오드아이'는 양쪽 눈 색깔이 다르다는 뜻으로 클래식을 전공한 멤버들이 모여 대중적인 음악을 하며 양쪽의 색을 모두 갖춘 팀이다. 전자 바이올린(규리), 플룻(지인), 전자 첼로(이음), 솔더 키보드(로아)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을 전공한 키보드 멤버를 중심으로 모든 멤버가 보컬이 가능하다. 2013년 1집 '따라하기 바쁜 길', 2집 'Follow Me', 3집 'Catch Me if You can', 4집 'Never' 총 4장의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력적인 돌연변이 '오드아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공연으로 각기 다른 악기인 전자 바이올린, 플룻, 전자 첼로, 솔더 키보드의 이해를 돕고 소프라노 멤버를 필두로 보컬+연주+퍼포먼스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공연이다. 들려주는 음악뿐만 아니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보여주고 함께 소통하는 공연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을 신나게 편곡하여 관객에게 친근하게 들려주고 귀에 익숙한 K-POP 음악을 새롭게 해석해 오드아이의 색깔로 표현한다.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는 안무와 퍼포먼스와 함께 모두 힐링할 수 있는 복합 공연이다.





악당후

2022 인천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6회 진행

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신가족대첩' 본선 진출

2021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아티스트 활동 등

악당후는 국악+재즈의 조합으로 판소리, 해금,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혼성 5인조 퓨전 국악밴드이다. 악당후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악당(빌런)'의 사연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기존의 공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을 보여준다. 대중들에게 흔히 잘 알려진 판소리 구전 내용에서 등장하는 일명 '악역'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재구성한 내용을 풀어 나감으로써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퓨전 국악과 재즈 음악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villain:주인공>

기존 공연의 레퍼토리는 '선한' 주인공을 내세운 경우가 많았지만, 과연 '악당은 처음부터 악했을까? 무언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치명적이면서 매력적인 악당의 매력을 심도 있게, 나아가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대표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 5바탕 중에 등장하는 '빌런(악당)'을 작곡 및 편곡하여 퓨전 국악 형태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삶과 사회 안에서 억눌려왔던 내재된 감정들을 해소시켜주고자 한다. 또한, 영화, 드라마, 판소리 등 어디서나 한 번쯤 등장하는 '악당'의 모습을 사연 있는 주인공으로 재구현하여 나쁘게만 느껴졌던 악당의 솔직한 모습을 표현하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압박 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또 다른 면을 재조명해본다.





오티비오티B

2022 목포뮤직플레이 전국경연대회 준우승(TOP2)

2021 인천국제공항 T1 문화예술 상설공연 아티스트

대표 자작곡 '라면먹을라면' 각종 방송매체 삽입(수요미식회, 무한도전 등)

오티비오티B는 보컬-기타-비트박스 3인으로 이루어진 신개념 감성 어쿠스틱 밴드이다. 팀 출범 당시 작업실이 옥탑방이었던 것에서 착안하여 옥탑방의 발음을 영어 이니셜로 한 팀명을 통해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다. 기나긴 코로나19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다시금 팀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400회의 공연을 수행했다. 또한, 각종 경연대회 수상 등 팀의 가능성을 결과로 증명해 내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적이면서 공감이가는 노래, 그리고 기존 밴드 음악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과 사운드 구현을 통해 많은 관객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서 와, 이런 밴드는 처음이지?>

보통의 밴드 음악을 생각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기존 밴드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타악기 파트를 2019 세계챔피언 출신의 비트박스로 대체하였기에 다양한 사운드의 구현은 물론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연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음악적 다양성을 리드하는 기타 연주와 독보적인 소울풀 보컬이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 케미스트리를 완성하며 보는 이들에게도 매우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울담

2023 전통 락 부천 페스티벌 출연
 2023 '거리로 나온 예술' 참여
 2022 청춘마이크 강원권 출연

울담은 전통연희를 전공하며 연희와 무속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무속음악과 한국 고유의 연희와 춤, 놀이 등 생동감 넘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전통음악을 사랑한다. 이러한 음악으로 예술가와 관객 간에도 서로의 감정과 공감을 인식하고자 울담은 전통연희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보존, 전승하며 문화의 연결 고리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람_바라다>

예로부터 우리는 함께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오늘을 살고, 더 나은 내일을 기원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것은 여전하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몸도 마음도 고장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전통음악만이 줄 수 있는 음악, 춤, 노래의 힘을 활용하여 치유와 연결의 장을 마련하자.





이재영

2023 안양청년축제 <청년휴양지> 공연

2023 <경기필름아트스쿨페스티벌> 개막 축하공연

2022 수원세계문화유산축전 축하공연

조각을 모으는 싱어송라이터로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는 사소한 순간들이 아쉬워 일기로,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기록한 조각들을 가지고 곡을 쓴다. 원형 그대로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대로 잘라놓은 조각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워지고, 누군가에게는 잊힌 기억을 불러오기를 바라며 노래한다.

<조각을 모아요>

가끔 예전 일기장이나 사진을 들여다보다 놀란 적이 있을까? 분명하게 존재했고 내가 기록하기까지 했던 순간들이 까맣게 잊히는 건 새삼스럽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때문에 잃어버리는 순간들은 생각보다 내가 다채로운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한다. 그런 순간들을 모아 노래를 부른다. 공연은 빛나는 태양 아래 기록되었던, 어리기에 순수했고 치열하던 그때의 반짝였던 '낮의 조각'으로 시작한다. '밤의 조각'에서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홀로 남겨진 괴로움과 부끄러움, 자괴감에 대한 조각이다. 마지막 '새벽의 조각'은 태양의 빛과 밤의 적막을 모두 안고서 결국 나아가려 하는 순간들에 대한 조각이다. 새까만 밤을 지나 다시 빛날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고민하고 알아냈던 마음에 대해 공연을 마친다.





이젠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X 아트파이 엔터테인먼트

2023 이젠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버스킹 공연 운영
2023 관악 청년특동 '다나카편' 총괄 기획 및 운영 (아트파이)

이젠과 아트파이는 춤, 음악, 연기, 미디어 4가지 분야를 융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예술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공연 외에도 행사 기획 및 운영하는 종합 예술 엔터테인먼트이다. 각각의 예술들은 하나의 가치를 가지며 서로가 조화롭게 합쳐질 때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문화와 예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다양한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같이의 가치>

과거와 현대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모습을 댄스 퍼포먼스로 보여주며 개인주의적 나노 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을 각각 예술의 '만남'을 키워드로 표현하여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서로'의 가치를 보여준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새로운 사람이나 문화 등과의 만남이 멀어진 현대. 예술로서 만남을 추구하고 서로를 바라본다.





킬라톤(장하석)

2023 대전0시축제 출연

2023 송도맥주축제 출연

2023 World DJ Festival 출연

Killaton은 'Jungle Terror'라는 유동적인 BPM이 특징인 장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믹스해서 색다르고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DJ이다. 이러한 장르 특유의 불규칙성을 특징점으로 활용하여 경이로운 정도의 유연한 분위기 전환 및 유지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매력이다.

<Jungle Terror>

'Jungle Terror'는 동물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 특이한 퍼커션 등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러한 'Jungle Terror'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활용하여 익숙하지만 생소한 소리로 만드는 공연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면서 친숙하고, 듣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누구나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집단

- 2023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초청공연 참여
- 2022 베니스축제한국탈출선정기원 공연 참여
- 2022 창덕궁후원케이티플탈춤페스티벌 참여

2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북청사자놀음을 중심으로 모인 젊은 '집단'이다. 세상에는 많은 집단이 있지만 우리의 '집단'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은 이유는 뮤지컬, 연극, 영상, 연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그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그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다.

집단은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연희계의 '크로스오버'를 지향하며 전통예술 북청사자놀음을 베이스로 어떤 장르사울, 클래식, POP, 하우스, 일렉, K-POP 등 어떤 음악에 제한적이지 않고 융복합이 가능하며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연희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전우치>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점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옛것에 대한 잊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K-POP 등 코레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과연 옛것에 대한 것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을까? 좀 더 우리의 멋을 제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키자 함에 전통예술과 현대미술의 익숙한 음악을 융복합 하여 관객 모두에게 전통의 멋과 신선함을 전해 주고자 한다.





과르텟앤

2022 삼척시립합창단 29회 정기연주회 / 삼척문화예술회관
 2022 신흥무관학교 축제 / 남양주시
 2021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광복절 특별 음악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시절 함께 공부한 선배들이 모여 결성한 과르텟앤은 기존의 클래식 연주 단체와는 차별화된 행보로 두각을 드러내온 팀이다. 2017년 결성하였으며 2019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사업자명: 음악앤) 결성 이후 관객의 큰 호응이 이어지며 서초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다수의 연주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9년 3월 6일에는 KBS 클래식 FM 음악실 초대석에서, 3월 23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The Red Tango]라는 제목의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현재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의 교육공연 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시흥시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과르텟 앤의 The Red Tango>

열정, 유혹, 사랑, 탱고를 수식하는 말이다. 매혹적이며 직설적인 탱고의 몸짓은 우리로 하여금 탱고를 강렬함과 퇴폐적인 이미지에 가두어 버린다. 우리가 탱고와 함께 강렬한 색, 빨간색을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탱고는 이러한 한정적 감정들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백 수 십 년을 거치며 삶 속에서 존재해 온 탱고 안에는 사랑과 열정 이외에도 슬픔, 환희, 분노 등 수많은 감정과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주를 통해 탱고의 다양한 감정을 노래한다. 빨간색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듯, 탱고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탱고가 지금껏 표현해 온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투플

2023 <쓰레기> 작, 연출/출연

2023 입체낭독극 <그리고 펌킨맨이 나타났다> 최윤희 출연

2023 연극 <현정승집도 재현 행사, 청문당의 여름> 출연

연극을 하면서 만나게 된 커플로, 플레이 커플을 줄여 '투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더 질 좋은 퀄리티의 예술을 하겠다는 의미로 투플(러스)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성처럼 사랑과 사람을 주제로 예술을 하고 싶어 팀을 만들었고, 젊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 사랑과 인간 관계 등을 주로 다루고 표현한다.

<쓰레기>

쓰레기 봉지에 남자를 넣어 쓰레기장으로 들고 오는 한 여자. 커플 아이템들과 주고받았던 선물들을 주섬주섬 버리며 추억들을 정리한다. 그때 여자 행인이 등장해 남자를 데려가려 한다. 여자 행인은 자신이 남자를 먼저 버린 사람이라며 남자의 실체를 이야기한다. 여자는 실망해 쓰레기장을 떠나려는 순간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새로운 남자가 등장한다. 새로운 남자는 여자와 함께 쓰레기장을 떠나고 행인은 남자와 다시 만나려 한다.

로맨스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 절정의 순간을 뽑으라면 이별의 순간일 것이다. 왜 우리는 좋았던 사람보다 쓰레기들이 더 기억에 남을까? 서로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코믹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블랙코미디를 만들고 싶었다.





힐소폰즈

2023 목동 로테오 세일 페스타 패션거리 <화목한 버스킹> 출연

힐소폰즈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 수 있게끔 아름답고 편안한 선율을 연주하는 2인조 색소폰 듀엣 팀으로 애절함, 행복, 슬픔 등 사랑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다양한 음악 장르로 표현한다.

<힐링 콘서트>

이번 힐소폰즈의 힐링 콘서트는 총 5가지 곡으로 준비했다. 첫 번째는, '원하고 원망하죠'라는 2인조 그룹 '애즈원'의 히트곡으로, 슬프면서도 사랑에 대한 애절함을 힐소폰즈만의 감성으로 표현했다. 이어서 연인과의 신나고 행복한 마음을 표현한 곡 'Can't take my eyes off you', 사랑하는 사이의 남녀가 오늘 밤엔 함께 있자는 마음을 표현한 'We've got tonight', 사랑한 마음보다 더 큰 상처를 줬 후회하는 감정을 담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노래이지만 물 흘러가듯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널 사랑하겠어'를 연주했다.



동고동락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결과공유회

10. 19. (목) 14:00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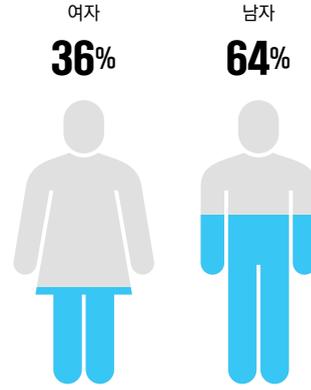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영상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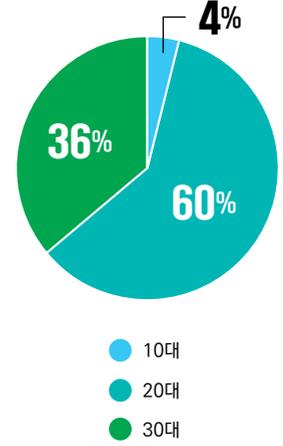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청년예술인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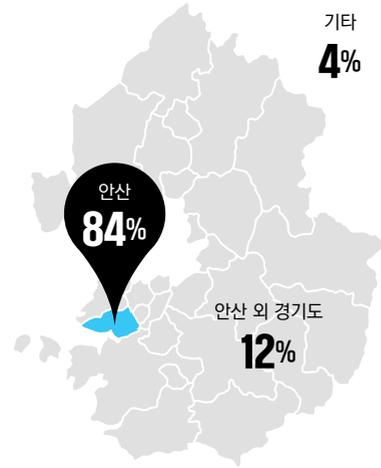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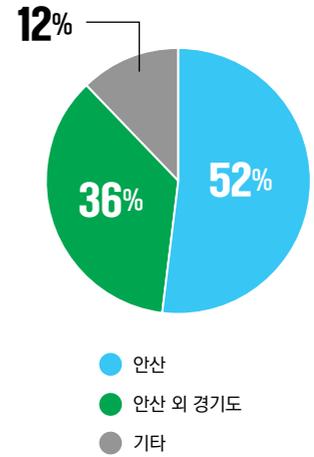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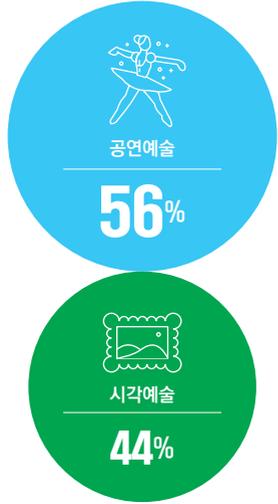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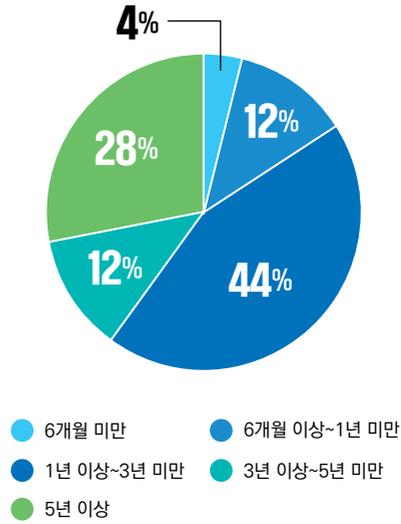
4. 주 활동지역이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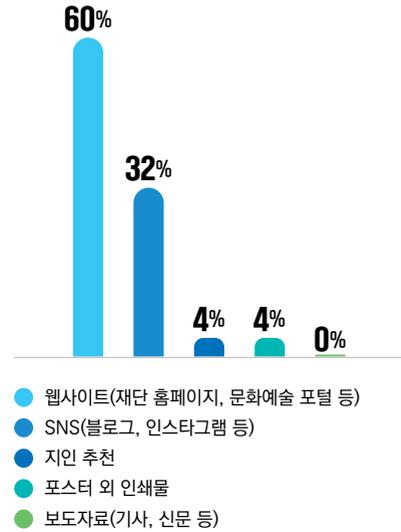
5. 귀하가 활동하는 문화예술 장르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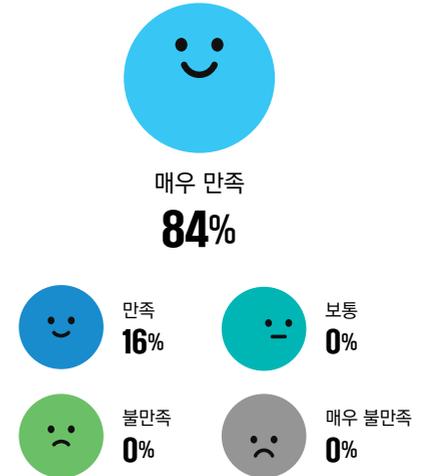
6. 주 활동분야와 관련한 총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9. 평소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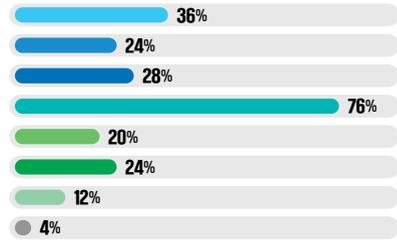


10. 귀하가 참여한 청년문화지원사업 <동고동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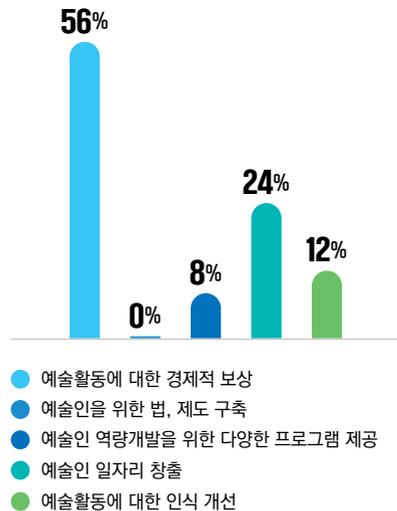
7. 청년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하며 경험하거나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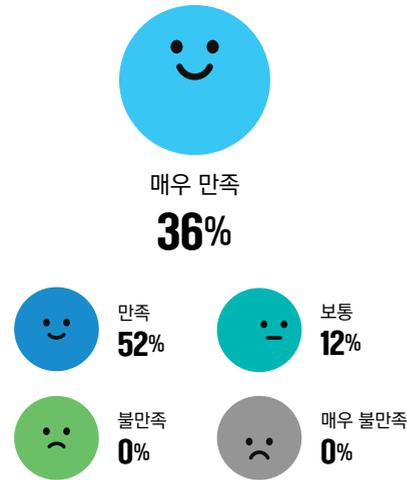


- 신진 단체(개인)의 높은 진입장벽
- 개인의 전문적 역량의 부족
- 활동 공간(연습 등) 확보의 어려움
- 경제적 지원 확보의 어려움
- 공공부문(시, 재단)의 이해 및 관심 부족
-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
- 사회적 관심 부족
- 기타: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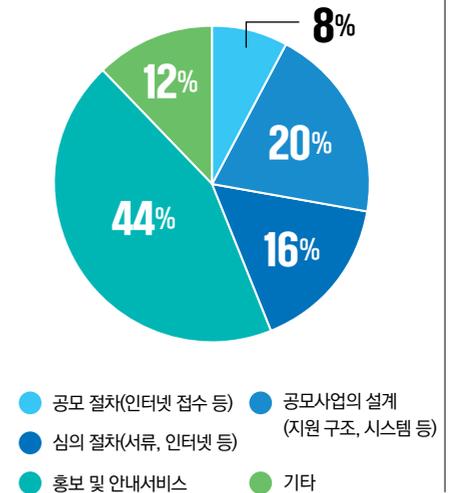
8. 청년예술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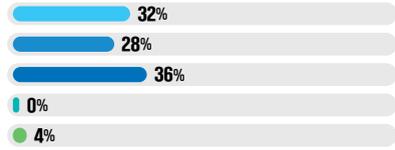
11. 안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12. 안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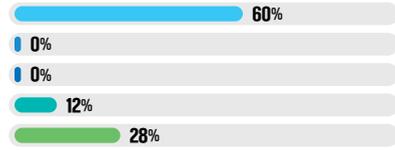


13. 평소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편중된 지원(특정 장르, 연속 지원 등)
- 부족한 지원금
- 관련 정보 부족
- 지원정책의 잦은 변화
-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1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예술가(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
- 작품 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 예술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문화예술 수요(시장) 확대

15. 청년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공연을 봤으면 더 서로의 팀에 대한 이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안산시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평하고 넓은 범위의 혜택을 통해 예술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많아졌음 좋겠습니다.
- 지원금의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금의 액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중복된 서류요청이 아쉽습니다.
- 만 39세 이상-50세 이하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청년의 나이를 더 넓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예술인에게 지원사업은 정말 목숨과도 같습니다. 일회적인 공연/전시라 하더라도 관계자분을 만나고, 공간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안산의 예술인 지원사업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 홍보가 더 많이 되어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 더 다양하고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각 사업별 지원금의 규모가 적은 경우 치열한 지원 과정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경향이 있다.
-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 안산예술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16. 끝으로 본 사업(동고동락)에 참여한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 작가로서의 문을 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 경험이었다.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들이었습니다.
- 좋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홍보가 좀 더 널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것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서 작성 등 다양한 워크숍을 들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예술인 간 네트워킹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워크숍 날 같이 점심 먹는 것 외에 따로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어느정도 안산 혹은 인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들이 교류하면서 다원적 문화예술로 발전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원사업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 해에 비해 관객이 적어 조금 아쉬움이 남았으나,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의미있는 공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멋진 기획단분들과 안산문화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며 덕분에 즐겁게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처음해보는 전시였지만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이를 발판삼아 더 넓은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예술의 전당 공연에 너무 만족스럽고 호응을 잘 해주신 관객들 덕에 재밌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간담회부터 워크숍, 본 전시까지 담당자님과 기획단 분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동고동락 사업에 잘 녹아 들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적

- 온라인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보도자료
- 영상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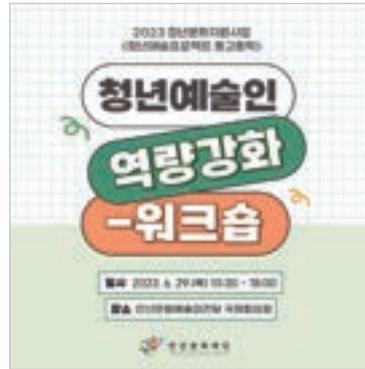
온라인 홍보



① 청년기획단 공모



② 청년예술인 및 단체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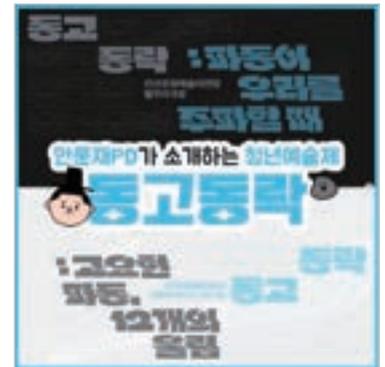
③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1)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		
시간	내용	목적
10월 10일 (수) 10:00 - 12:00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1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1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1차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10월 11일 (목) 10:00 - 12:00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2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2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2차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10월 12일 (금) 10:00 - 12:00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3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3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3차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10월 13일 (토) 10:00 - 12:00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4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4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4차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10월 14일 (일) 10:00 - 12:00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5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5차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5차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④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2)



⑤ 동고동락 인스타그램



⑥ 안문재 PD 카드뉴스



7 전시 상세페이지



8 전시 카드뉴스



9 공연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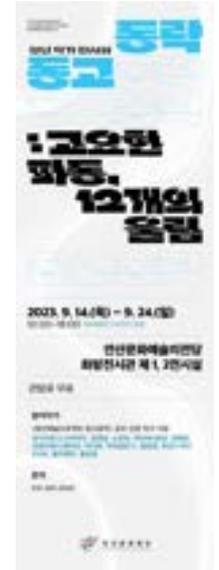
10 공연 상세페이지

오프라인 홍보

전시회



1 청년 작가 전시회 리플렛



2 청년 작가 전시회 배너



3 청년 작가 전시회 포스터



4 청년 작가 전시회 현수막

콘서트



1 청년 예술 콘서트 리플렛



2 청년 예술 콘서트 배너



3 청년 예술 콘서트 현수막



4 청년 예술 콘서트 포스터

보도자료

연번	보도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1	02. 01	컬처타임즈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시작... 전문예술인, 시 문화예술활동가 및 청년예술인 등 지원대상 세분화
2	02. 01	천지일보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3	02. 01	인천일보	안산문화재단,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청년문화지원사업 등 6개 분야
4	02. 01	신아일보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시작
5	02. 01	헤럴드경제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6	02. 02	이뉴스 투데이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시작
7	02. 02	경기신문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8	02. 15	중부일보	안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9	08. 25	신아일보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개최
10	08. 25	도민일보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개최
11	08. 27	NSP통신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개최
12	08. 27	경기남부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개최
13	08. 28	안산타임스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청년예술제 개최
14	08. 30	기호일보	예술과 동고동락한 안산 청춘들 이야기
15	09. 22	중부일보	안산문화재단 청년 작가 전시회 '청신호:고요한 파동 12개의 울림' 개최

영상결과물

공연



전시



청년 예술
콘서트 1부



청년 예술
콘서트 2부



청년 예술
콘서트 3부



청년 작가
전시회

2023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주최/주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책임 시민축제부장 신항섭

기획운영 시민축제부 오혜미

운영지원 시민축제부 김민정, 강동하, 김지안, 유다인, 당현진, 유지형, 박소윤, 김승유, 국예림

청년기획단 김재현, 김채연, 유효진, 장한솔, 조용진

디자인·인쇄 디자인두잇

디자이너 김수경

촬영 스튜디오오디티

발행일 2023. 11.

© (재)안산문화재단(153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T. 031-481-4000, F. 031-481-0520, W. www.ansanart.com

※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안산문화재단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